

# 네이버·카카오, 9개 매체 뉴스유통 퇴출

네이버·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기구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는 기존에 입점된 매체에 대한 심사 결과 9개 매체(네이버 9개, 카카오 3개)에 대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1월 25일 밝혔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벌점 누적으로 인한 재평가로 퇴출된 매체는 검색제휴 매체인 아시아뉴스통신, 더리더, 폴리뉴스, 미래한국, sbn뉴스, 울산저널, 업코리아, 스타트업투데이, 엔터미디어 등 9곳으로 알려졌다.

평가위는 정기적으로 포털 입점 언론사를 재평가해 기준에 미달하는 언론사는 계약을 해지한다. 지난해에는 총 39개 언론사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하고, 29개 매체에 대한 계약해지와 4개 매체의 제휴 지위가 변경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8월 24일부터 2주간 신청 받은 포털 뉴스 신규 입점 매체에 대한 평가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평가위에 따르면,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는 네이버 132개(콘텐츠 82개, 스탠드 76개, 중복 26개), 카카오 94개, 총 155개(중복 71개) 매체에 대해 신청을 받았고, 이중 뉴스콘텐츠 1개, 뉴스스탠드 4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뉴스검색 제휴 관련해서도 614개 매체(네이버 512개, 카카오 377개, 중복 275개) 매체가 신청했고, 이 중 15개 매체가 입점 통과됐다.

평가위는 제휴 규정에 따라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의 '정량 평가(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80%)'로 심사한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뉴스콘텐츠 제휴'는 80점,



‘뉴스스탠드 제휴’ 70점, ‘뉴스검색 제휴’ 6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한다. 입점심사 기준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2019년에 진행된 입점심사에서는 94개 매체(검색제휴 77개)가 통과된 반면, 이번 심사에서는 총 20개 매체(검색제휴 15개)만이 합격하며 비율이 2%대로 크게 떨어졌다. 이와 관련해 조성겸 심의위원장은 “보도자료나 타 언론사 기사를 자체 기사로 제출해서 탈락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제휴 매체 심사에서는 정량평가는 물론이고 저널리즘의 품질과 윤리성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계에서도 이번 결과에 대해 주목하는 분위기다. 광고주협회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언론사 수만 해도 9천여 개에 이르는 등 포화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사 어뷰징 등 일부 저널리즘 일탈행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언론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며 “평가위가 입점기준을 강화하고 문제가 지적되는 매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인터넷 언론환경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⑩

유재형 yoojh1999@kaa.or.kr